

### 산모 4명 중 3명 산후조리원 이용 ... 평균 221만원 지출

#### 집에서 산후조리할 때 신생아 돌봄 교육 원해

#####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모 4명 중 3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적으로 2주간 머물면서 22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소는 산후조리원(75.9%), 본인집(17.7%), 친가(6.0%) 순이었다. 25세 미만 산모는 본인집을 선호하는 비율이 29.1%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만족도는 친가(4.3점), 산후조리원(4.0점), 본인집(3.8점), 시가(3.7점) 순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 이용기간은 평균 13.2일, 비용은 평균 2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유는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36.5%), '육아전문가에게 육아방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18.7%)였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녀 돌봄'(40.5%)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 전 받은 교육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은 감염예방·관리계획 교육(59.1%)이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은 모유수유 교육과 신생아 돌봄 교육(4.1점)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한 시간은 일 평균 4.2시간이었다. 모자동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산모는 52.4%였다. 그 이유로는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65.4%)가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원 이외 산후조리 기간은 본인집 22.6일, 친가 22.3일, 시가 20.3일이었다.

집에서 산후조리 시 평균 지출 비용은 95만8000원이었다. 집에서의 산후조리에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친가부모(47.4%), 산후조리도우미(낮)(28.9%)였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신생아 돌봄 교육(64.3%), 신생아 안전 교육(63.5%)이었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32.2일)로 조사됐으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8.3주(58.1일)로 희망하는 기간과 실제 사이에 3.7주(25.9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51.1%), 산모·신생아 건

관리 지원사업 확대(27.2%), 배우자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제도 활성화(23.4%) 등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경비지원(48.7%), 감염·안전관리 강화(26.7%)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시에는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모의 50.3%는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 조사 당시(출산 후 9~20개월) 산후우울 위험군은 33.9%로 조사됐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았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였으며,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34.7%로 더욱 높았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무료 산후진찰 지원(37.7%), 산후우울 상담 및 치료(32.8%)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수립을 위해 앞으로 3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대구보건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양성 교육

대구보건대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했다.

대구보건대를 비롯해 지역 9개 대학에서 69명이 참가했다. 14시간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대구시 건강증진,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역할, 국가 금연정책의 이해, 흡연의 폐해와 최신 금연치료, 금연과 스트레스, 금연프로그램 활용과 지도, 멘토링 등이 다뤄졌다.

수료생들은 대구시 3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로 위촉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관내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과 멘토링 활동,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을 주관한 이유정 대구보건대 보건산업융합지원단장(간호학과 교수)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금연정책에 발맞춰 금연서포터즈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년째 대구시의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역 사회 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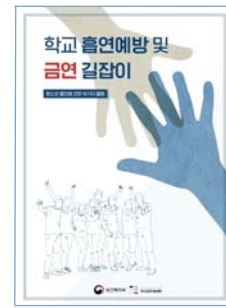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발간·배포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홍보(캠페인),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길잡이는 학생의 흡연 여부와 흡연 정도에 따라 대상자별 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방법을 안내해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10개의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교사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길잡이는 △청소년기 흡연의 특



징과 폐해, 대상자별(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안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10개의 주요 질의답변과 지침 △각 지침에 따른 실용적인 부록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길잡이는 책자로 제작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에서 해당 책자를 관할 학교로 확산할 수 있도록 파일(인쇄용, 웹 게시용) 형태로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용한 전직간호사가 76.7%로, 이 중 1개 의원만 다니는 환자는 84.8%였다. 1개 의원을 다니는 환자에 비해 흡입스테로이드 및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혜진 기자 hjjo@

### 전식 적정성 평가 양호기관 20%

#### 흡입스테로이드 적극 사용 권장

전식환자의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비율이 3명 중 1명꼴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차 전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식은 꾸준한 방문과 관리로 질병의 악화 및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및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가 평가대상이다.

평가결과 전식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가 1년간 폐기능 검사를 1회 이상 받은 비율은 33.1%에 불과했다.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비율도 36.6%에 그쳤다. 이는 아시아권 국가들(싱가포르 88%, 대만 55%, 인도 44%)보다 낮은 것이다.

특히 흡입스테로이드는 전식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먹는 약에 비해 사용방법이 어려운 점과 일시적 증상 완화로 흡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번 평가결과 양호기관은 평가대상 전체 8357곳 중 1667곳(19.9%)이었다. 양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양호한 의원은 844개로 전체 양호기관의 50.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을 이

##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9년 면허신고 대상

-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2 ~ 2015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 2016년 면허 취득자
- ▶ 2016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2019. 1. 1. ~ 2019. 12. 31.

###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8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면허신고센터 : ☎1588-6282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 강동경희대병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슬로건 선포

강동경희대병원(병원장 김기택)은 2019년 고객감동 슬로건으로 '환자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를 선포했다.

고객감동의 출발선인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존중과 예의를 갖춘 경청' '정기적인 회진과 쉽고 자세한 설명' '행복한 경험과 따뜻한 위로'를 3가지 중점 실천항목으로 발표했다.

슬로건 포스터를 제작해 전 부서에 부착하고, 전 직원이 슬로건 배지를 착용했다. 고객 응대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부서별 CS리더 총 60명을 선정해 부서별로 맞춤형 고객감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김기택 병원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슬로건을 필두로 전 교직원들이 합심해 환자중심병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2260-2579	
<b>koreanurse.or.kr</b>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b>nursenews.co.kr</b>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http://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요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